

5년전 꺼진 지구당 불씨 되살리나

■국회 정개특위 분야별 쟁점은

여야가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 관련 계류법안을 12월 중순까지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쟁점에 대한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 및 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90개 법안과 2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중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지구당 부활 문제.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불법과 고비용 정치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몰려 폐지됐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사실상 지구당사무실을 변칙

과태료 '50배 룰'·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도 관심

선거법·정당법 등 계류법안 내달 중순까지 처리키로

운동해 오고 있고 지역 여론의 형성과 전달 역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현재 특위에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당원협의회 지역사무소를 허용, 사실상 과거 지구당을 부활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통과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도 관심을 모으는 쟁점이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지방의 중앙정치 예측, 고비용 선거구조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 하지만, 정당정치를 추구하는 국내 정치여건상 피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당공천이 되지 않을 경우 정치 신인 발굴의 어려움과 인기영합 위주의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에서 기부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50배 룰'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정비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위반의 동기와 형태 등을 고려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다.

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현재 100만원인 당선 무효형 벌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법안·단체가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되, 선관위가 이를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분할 지급하거나 각 당의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안이 제출돼 있어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낙연 '2009 국감 최우수상임위장'에

○광주·전남지역 이낙연·김효석·최인기·주승용·이용섭·김영록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09 국정감사 최우수상임위위원장과 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영광·함평·장성)은 올 국정감사 최우수상임위위원장으로 뽑혔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뽑힌 바 있는 이 위원장은 2008년 우수상임위위원장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최우수상임위위원장으로 선정돼 국감 연속 수상 기록을 7년으로 이어갔다.

또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은 올 국감 우수국회의원으로 뽑혀 지난 2000년 국회 입성 이후 10년 동안,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2007년을 제외하곤 계속해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인기 의원(나주·화순)도 이번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선 이후 올해까지 6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와함께 주승용(여수), 이용섭(광주 광산),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의원이 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는 이상용 차기 한인회장, 총무에는 김창엽씨를 각각 임명했다.

한광옥 '한반도 통일' 특강

○한광옥(사진)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7시 전남 대평교육원에서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6·15 공동선언의 기초를 만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평양을 방문하는 등 통일정책의 일선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방안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미리 배포한 강연 자료를 통해 "우리 민족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수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통일의 기적과 민족부흥을 이룩해야 한다"며 "민주화 세력·근대화 세력·미래지향적 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예

○광주시의회 이명자 운영위원장(민주·비례대표·사진)이 최근 광주장애인인권포럼 선정 '2009 광주·전남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에 뽑혔다. 또 광주시의회 김후진·이정남 의원과 전남도의회 임흥빈·박해숙·국영애 의원은 각각 우수의원예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광주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등을 발의한 점이 인정받았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기초의회 의정활동 부문에서는 광주 서구의회 강은미·김명수·박신애 의원과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원, 목포시의회 오승원·고경석 의원, 순천시의회 허강숙·문규준 의원이 각각 우수의원예로 선정, 수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동채 전 장관 '印稅 받는' 자서전

DJ·盧 前 대통령과의 비화...내달 2일 출판회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과의 인연과 자신의 인생역정을 묶은 자서전을 출간했다.

특히 이 책은 통상 정치인들이 자비를 들여 자서전을 출간하는 것과 달리 출판사에서 원고를 채택, 저자에게 인세를 지불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펴낸 '동고·동락·동행'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실장으로서 두 전임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그는 이 책에서 제 15·16·17대 국회의원과 참여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제1부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에서 합동통신 근무 중 80년 신군부에 맞서 제작 거부 투쟁을 벌이



다 강제해직 당한 뒤 미국에서 망명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소개한다.

또 제2부 '정면 승부사 노무현 대통령'에서는 보수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철학을 굽히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면모와 정치인으로서의 독심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출판기념회는 다음달 2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생각의 나무·1만5천원>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주 대형산불 22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북서쪽 릴스톤의 마을 근처에서 한 소방관이 산불을 지켜보고 있다. 호주에서는 연일 40도를 넘는 고온과 강풍으로 큰 산불이 발생해 100ha 이상을 태웠으며, 호주 정부는 재난경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사이판 총격 난사 범인은 중국계 조선족”

사업실패 비판 유서 남겨...한국인 부상자 귀국

지난 20일(현지시간) 서태평양 사 이판섬 마르피지역 '만세절벽'에서 발생한 총기 난동사건의 범인은 중국계 30대 리모(리종렌·Lee Zhong Ren)씨로 사건 당시 반자동소총 등 무기로 무장했으며 유서를 남겼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지 인터넷매체 퍼시픽뉴스센터

(PNC)는 21일 사이판 카나타라블라 사격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리가 사이판 다른 지역에서 사격장을 개설하려다 실패하자 불만을 털어놓았으며 “사업협상이 잘 안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총기난동으로 규

정하고 사건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광대일리와 사이판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범인이 중국 국적 조선족 리모(34)씨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등 부위에 총탄을 맞아 척추와 장기 일부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박 모(39)씨는 21일 밤 11시48분 광대일이 제공한 환자 후송용 소형 비행기에 실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연합뉴스

美 한반도 전문가 3명 방북

책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니콜 피네만 KEI 학술연구부장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명이 지난 21일 방북했다.

프리처드 소장 일행은 21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특별한 언급 없이 북한 고려항공편을 타고 평양으로 향했다고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이 22일 말했다.

이들은 24일까지로 예정된 방북 기간 북·미 관계 및 핵과 관련된 북한 주요 당국자들을 연쇄적으로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u University' (광주대학교)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ee and text promoting the university's 50th anniversary and various programs.